

화랑과 세속오계

화랑도(花郎徒)란 신라에 있었던 화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청소년 그룹을 말합니다. 화랑이란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화랑도는 함께 수련하고 가무를 즐기면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도는 마음 속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서 화장도 했습니다.



화랑도 내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삼국 통일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682년 국학 설립 이후, 국학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화랑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 제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화랑도는 무엇보다 나라와 부모님, 그리고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와 관련하여 꼭 지켜야 하는 세속오계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세속오계는 신라 진평왕 때의 승려 원광이 화랑에게 준 다섯 가지 교훈입니다.

- 사군이충(事君以忠) :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 사친이효(事親以孝) :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 교우이신(交友以信) : 친구를 사귄 때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임전무퇴(臨戰無退) : 싸울 때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 살생유택(殺生有擇) :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